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분석*

임 수 진[†]

전남대학교 다문화사회구현특성화사업단

한 규 석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 지방의 국립대학에서 유학생생활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리적 부적응은 우울척도와 불안척도를 갖고서 측정하였으며,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소속, 거주기간, 가족의 경제적 수준, 한국어 실력, 주거형태, 건강상태를,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예측 변인으로는 개인적 요인에서는 건강상태만이, 심리적 요인에서는 사회적 지지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국어 사용능력, 거주기간, 친한 한국인의 숫자 등과 같은 현지 문화적응에 도움이 되는 변인들이 별 다른 예측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관련된 변인들의 분석은 이들 유학생들이 한국사회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이지 않고, 유학생끼리 어울리는 섬 생활을 하는 양상을 보이며, 섬 생활을 보이는 경우에 더욱 심리적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중국 유학생, 심리적 부적응, 불안, 우울, 사회적 지지, 건강상태, 섬 생활

* 본 논문은 전남대학교의 다문화사회구현특성화 사업단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어 번역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북경대학의 정윤희 선생, 전남대 심리학과 의 이호빈 유학생,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신 전남대 언어교육원의 윤기한 선생께 감사드린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임수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Tel : 062-530-2650, E-mail : sjlim429@hanmail.net.

지구촌 시대에 들어와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류(韓流)의 영향과 국력의 신장에 힘입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유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학생 주요 송출국이었지만, 근래에는 송출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학유입’ 혹은 ‘유치유학’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전환적 상황을 맞고 있다(안영진·최병두, 2008). 2008년 현재 국외에 유학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약 29만 명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6만 명이 넘어 섰다. 그 중에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약 4만 명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국립국제교육원, 2008).

한국에 유학 오는 외국 유학생의 대부분은 학업, 문화,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을 택하여 들어온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의 입학동기는 미래를 위한 준비, 주변사람의 영향, 문화적 관심으로 나타났다(하정희, 2008). 이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들은 이들 유학생의 적응을 돕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며, 아울러 향후 다문화사회로 진행되는 한국사회가 지닌 문제점을 유학생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추는 기능을 할 것이다.

새로운 교육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대학에서의 학업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여기에 유학생들은 문화적인 충격까지 덧붙여 모국에서 생활하는 일반 학생보다 더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유학생들의 타국에서의 적응과정

에서 언어 장벽, 학업에서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사회적 지지의 감소와 더불어 때로는 인종/민족적 차별까지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탓에 이들은 우울, 불안, 고립감, 그리고 외로움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Misra, Crist, & Burant, 2003; Sumer, Poyrazli & Grahame, 2008; Wang & Mallinckrodt, 2006; Wei, Heppner, Mallen, Ku, Liao & Wu, 2007). Moris(2000)는 새로운 사회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희망을 상실하게 하고 강함 무망감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우울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연관되어 있으며 외국문화에 노출된 사람들은 문화적응의 스트레스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인다(Furukawa, 1997). 우울과 불안은 생활 스트레스의 중요한 증상으로 자주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의 이러한 심리적 증상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심리적 적응에는 이들의 언어능력, 거주기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언어와 관련해서 영어사용기술의 부족은 유학생의 학업성취와 사회적 수행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Moris, 2000; Poyrazli, Arbona, Nora, Mcpherson & Pisecco, 2002). 미국 내 중국유학생들과 33개국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낮은 언어실력은 우울과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주었다(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Wang & Mallinckrodt, 2006).

거주기간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거주기간과 우울증상은 U-곡선을 보여주었다(Oei &

Notowidjojo, 1990) 하지만 최근의 미국 내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우울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Sumer, Poyrazli & Grahame, 2008; Wang & Mallinckrodt, 2006).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사회적 지지만족, 지각된 사회적 관계망, 지각된 사회적 지지 등이 유학생의 적응수준, 생활만족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었다. 미국내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학생들은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며, 우울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Misra, Crist, & Burant, 2003; Sumer, Poyrazli, & Grahame, 2008).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유학생들의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충작용(Buffering effect)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을 분석한 한 연구(Misra, Crist, & Burant, 2003)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캐나다, 호주 유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이 효과적으로 유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행해진 자아 존중감과 관련하여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송원영, 리난, 2008)는 중국 유학생들의 자존감은 우울 및 불안과 역상관의 관계를 보였다.

지금까지 유학생에 대한 국내 논문은 매우 적은 편수에 불과하지만 그중 중국 유학생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그들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왔다(서한나, 2008; 임춘희, 2008; 장혁심, 2005; 최금혜, 2008; 하정희 2008). 이들 연구결과를 살펴보

면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려워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인에 편견으로 불편하다는 내용들이었다. 중국 유학생의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의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요인들, 즉 연령, 성별, 거주기간, 경제적 수준, 한국어 능력,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자기 효능감 등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 유학생의 우울과 불안으로 표출되는 심리적 부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국립대학교에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175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구참여 유학생의 나이는 18세에서 30세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나이는 21.8세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104명이고 여학생이 71명이었다. 소속은 언어교육원생이 65명, 대학생이 96명, 대학원생이 5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실력은 ‘잘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40명,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82명, ‘못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51명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1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주거형태

표 1. 중국인 유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 목		빈도(%)	항 목		빈도(%)
성 별	남	104(59.4)	아르바이트	한다	19(10.9)
	여	71(40.5)	여부	안 한다	156(89.1)
소속	언어교육원	65(37.1)	가정의 경제수준	상	57(32.6)
	대학	96(54.9)		중	108(61.7)
	대학원	5(2.9)		하	9(5.1)
자기보고 한국어 실력	상	40(22.9)	거주기간	12개월	70(40.0)
	중	82(46.9)		24개월	79(45.1)
	하	51(29.1)		24개월 이상	17(9.7)
자기보고 건강상태	지병이 있다	1(0.6)	친한 한국인과의 친밀도	인사하고 지냄	28(16.0)
	자주 아프다	2(1.1)		가끔 만남	100(57.1)
	가끔 아프다	10(5.4)		자주 만남	39(22.2)
	건강하다	111(63.4)		매일 만나고 개인적 이야기함	5(2.9)
	매우 건강하다	50(28.6)			
주거형태	기숙사	46(26.3)	종교	무	154(88.0)
	원룸	49(27.9)		기독교	5(2.9)
	아파트	15(8.6)		불교	13(7.4)
	고시원	64(36.6)		기타	2(1.1)

는 기숙사 46명, 원룸 49명, 아파트 15명, 고시원 64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 19명이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학생이 156명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이 57명, 중이 108명, 하가 9명이었다. 한국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인 70명, 1년-2년이 79명, 2년 이상이 17명이었다. 평균 거주기간은 약 15개월이었다. 친한 한국인과의 친밀도에서는 가끔 만남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154명이었다. 친한 한국인의 수는 평균 4명이었고, 한 명 이하가 29명, 2-3명이 48명, 4명 이상이 73명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광주지역의 C대학에 유학중인 중국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언어교육원 수강생, 18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7명을 제외하고 175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개별면접을 하거나 유학생의 멘터 대학생이 자료수집을 도와주었다. 멘터링을 하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한글로 된 설문지와 중국어로 된 설문지를 제공하였고,

유학생들에게는 중국어로 제작된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 .92이었다.

측정도구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우울척도, 불안척도, 사회적 지지척도,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의 척도들이다. 본 설문은 5가지의 척도 외에 연령,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심리적 부적응

심리적 부적응은 우울과 불안 두 가지를 측정하여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유학생의 우울수준과 불안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 List 90 Revision, SCL-90-R)’에서 우울에 해당하는 문항 13개와 불안에 해당하는 문항 10개를 사용하여 총 23 문항이었다. SCL-90-R은 김광일, 김재환과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하지 않으면 0점, 심하면 3점을 선택하는 4점 리커트 유형으로, 총점은 0에서 69점 사이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우울은 .903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은 .93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사회적지지

Zimmet, Dahlem, Zimmet과 Farley(1988)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를 바탕으로, 타인의 지지를 학교의 지지 내용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가족, 친구, 학교의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에 대하여 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9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학교의 지지로 문항

자아존중감

Rosenberg(1979)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전병제(1971)가 우리 말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문항(1,2,4,6,7,)과 부정문항(3,5,8,9,10) 각 5개씩 10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8이었다.

자기효능감

Sherer와 Maddux(1982)가 개발한 자기 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를 양길모(1998)가 번안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3 문항이며 7점 리커트 척도이다. 총점은 23-164 사이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7이었다.

자기보고 한국어 능력

유학생들에게 한국어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네 가지 영역에 대해 스스로 평정하도록 하여 이들 평정치 합인 평균을 한국어 능력으로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5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였다.

이러한 척도들로 구성된 설문지는 한국어판과 중국어판 두 가지로 만들어졌으며 설문지의 중국어판 제작은 중국에 유학중인 한국인 심리학 박사과정생에게 의뢰하여 1차 번안하였으며, 중국인 심리학 박사에게 확인하여 2차 번안을 하였고, 한국에 유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에게 시행하여 재확인하고, 부분적으로 조정하여 사용 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유학생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15.0 PC 판을 사용하였다.

결 과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본 조사에서 다룬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2). 연령은 거주기간($r = .45, p < .01$)과 가족의 경제수준($r = .22, p <$

$.01$), 친한 한국인 수($r = .18, p < .01$)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거주기간은 가족의 경제적 수준($r = .21, p < .01$), 한국어 실력($r = .22, p < .01$), 친한 한국인 수($r = .18, p < .01$)와 역시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건강은 자아존중감과($r = .19, p < .01$)는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심리적 부적응($r = -.27, p < .01$)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r = .39, p < .01$)과 자기효능감($r = .28, p <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심리적 부적응($r = -.29, p < .01$)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자아존중감 역시 자기효능감과($r = .38, p < .01$)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심리적 부적응($r = -.24, p < .01$)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자기효능감도 심리적 부적응($r = -.22, p < .01$)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각 변수들의 성격상 예상되는

표 2. 연령, 거주기간, 가족경제수준, 한국어실력, 건강, 친한 한국인수,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심리적 부적응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연령	-									
2. 거주기간	.45**	-								
3. 경제수준	.22**	.21**	-							
4. 한국어실력	-.03	.22**	-.04	-						
5. 건강	.00	-.02	-.04	.04	-					
6. 친한 한국인 수	.18**	.18**	-.07	.07	.01	-				
7. 사회적지지	.07	-.07	-.13	-.10	.14	.01	-			
8. 자아존중감	-.03	.06	-.14	.03	.19*	-.02	.39**	-		
9. 자기효능감	.13	-.10	.02	-.04	.10	-.03	.28**	.38**	-	
10. 심리적어려움	-.10	-.03	.05	-.01	-.27**	.12	-.29**	-.24**	-.22**	-
평균	21.81	14.81	2.71	3.04	4.68	4.18	29.23	31.24	109.96	10.70
(표준편차)	(1.88)	(8.17)	(.65)	(.52)	(4.61)	(.63)	(5.91)	(4.48)	(15.15)	(11.47)

* $p < .05$, ** $p < .01$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 자료가 분석에 적합함을 보이고 있다.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집단차이 및 영향요인 분석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 차이 및 영향 요인 분석

우울과 불안은 높은 상관($r = .676, p < .01$)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두 점수를 합산하여 심리적 부적응으로 삼았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부적응과 개인적 요인(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은 표준점수 T점수로 환산하여 보면 대부분 정상의 범주에 속하였고, 이 T점수가 70점 이상인 유학생이 우울에서는 6명(3.4%), 불안에서는 7명(4%)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불안을 동시에 경험하는 학생은 2명 이었다.

유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토한 결과, 18-20세의 심리적 부적응의 평균은 10.50 이었고, 21-24세의 평균은 11.43이며, 25세 이상의 평균은 4.18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어려움이 덜 한 양상이 보이지만, 사례 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못하였다. 성별에서는 남녀 학생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소속에 따라서는 언어교육원생과 대학생의 수준이 비슷하였고, 대학원생의 심리적 부적응은 7.80으로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이들의 숫자가 적은 탓에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 거주 기간에 따라서는 1년 이하인 학생과 1년~2년

간 거주한 학생들이 비슷하였으며, 2년 이상 거주한 학생($M = 8.41$)이 다소 낮게 나타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부적응은 감소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가 지각한 한국어 실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어를 못한다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부적응을 보였으며 보통수준과 못하는 수준의 학생들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심리적 부적응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주거형태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의 차이에서는 아파트, 기숙사, 원룸, 고시원의 순으로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p < .16$), 원룸과 고시원처럼 혼자 생활하는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심리적 부적응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상태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의 분석에서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F(3, 169) = 5.32, p < .05$). 먼저 “지병이 있다”는 응답자가 한 사람이라서 이를 “자주 아프다”로 포함시켰다. 이 집단은 22.50, “가끔 아프다”의 집단은 17.90, “건강하다”의 집단은 11.96, “매우 건강하다”의 집단은 6.24로 나타났다. 지병이 있다는 분산이 존재하지 않아 제외하고 나머지 4집단을 사후분석(Scheffe)한 결과 “매우 건강하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심리적 부적응을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부적응에 대해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건강을 제외하고는 연령, 성별, 거주기간, 가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175)

	항 목	N	M	SD	<i>df</i>	<i>F</i>
연령	18-20세	40	10.50	10.31	2, 171	.193
	21-23세	105	11.85	12.68		
	24세 이상	29	7.17	7.12		
성별	남	104	10.26	10.26	1, 173	.19
	여	71	11.16	13.10		
소속	언어교육원	65	10.16	10.69	2, 163	.22
	대학	96	10.78	10.86		
	대학원	5	7.80	7.36		
거주기간	1년 이하	70	11.44	13.05	2, 164	.46
	1-2년	79	10.98	11.21		
	2년 이상	17	8.41	6.88		
가족의 경제수준	상	57	9.64	9.98	2, 171	.58
	중	108	11.50	12.24		
	하	9	9.11	11.24		
한국어 실력	못함	40	12.02	12.08	2, 170	.81
	보통	82	9.35	10.86		
	잘함	51	10.56	10.27		
주거형태	기숙사	46	8.47	10.16	3, 169	2.49
	원룸	49	9.77	9.16		
	아파트	15	8.26	11.29		
	고시원	64	13.76	13.43		
건강상태	자주 아프다	3	18.33	23.62	3, 169	5.05**
	가끔 아프다 ^b	10	17.90	20.76		
	건강하다 ^b	111	11.96	10.83		
	매우 건강하다 ^a	50	6.24	7.85		

p* < .05 *p* < .01

족의 경제수준, 한국어 실력은 유의미한 예측 적 부적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변인이 되지 못하였다. 건강이 좋을수록 심리 $-.215, p < .01$).

표 4.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중다 회귀분석 (방법: 입력)

모델	예언변인	B	SE	β	t
1	연 령	-.73	.53	-.12	-1.39
	성 별	1.44	1.82	.06	.79
	거주기간	.07	.13	.05	.56
	경제수준	.97	1.51	.05	.64
	한국어실력	-.59	1.69	-.03	-.35
	건강	-3.92	1.42	-.22	-2.75**

** $p < .01$,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영향분석

심리적 부적응에 대해 심리적 변인을 예측 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심리적 부적응은 감소하였다($\beta = -.334, p < .01$).

심리적 부적응에 대하여 심리적 변인이 건강이라는 신체적 변인과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기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에서 건강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투입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독립적인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Delta R^2 = .082$).

표 5.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심리적 변인의 중다 회귀분석 (방법: 입력)

모델	예언변인	B	SE	β	t
1	사회적지지	-.65	.17	-.33	-3.91**
	자아존중감	-.15	.23	-.06	.64
	자기효능감	-.08	.06	-.10	-1.18

** $p < .01$,

표 6.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개인적, 심리적 변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	예언변인	B	SE	β	t	R^2	ΔR^2
1	건강	-5.05	1.32	-.29	-3.83***	.08	.08
2	건강	-4.33	1.28	-.25	-3.39**	.17	.08
	사회적 지지	-.57	.14	-.29	-3.96**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 참여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적응이 정상 범위 안에 포함되었다. 이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비교적 양호한 정신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유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나사회학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연령, 거주기간, 가족의 경제적 수준, 한국어 실력은 유의미한 예측요인이 아니었으며, 건강상태만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관련 변인들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도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만이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문화에 노출되어 적응해 가는 유학생과 이주민들에 대한 외국의 연구들이 제시하는 결과들과는 사뭇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러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미국 내에서 생활하는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호주에서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나이, 거주기간, 언어능력, 사회적 지지 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나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보고 되었다(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Misra, Crist & Burant, 2003; Sumer, Poyrazli, & Grahame, 2008; Wang & Mallinckrodt, 2006; Wei, Heppner, Mallen, Ku, Liao, & Wu, 2007). 하지만 본 연구와 국내 몇몇 다른 연구(서한나, 2008; 허춘영, 1998)에서는 이런 연구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연령, 성별, 거주기간, 경제적 수준, 한국어 사용 능력 등은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먼저 연령 및 거주기

간과 관련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연령이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거주기간도 대부분 1-2년 사이로 짧은 체류기간을 보이고 있어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기에는 변이가 충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학생들은 체류 목적이 뚜렷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대부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본국으로의 귀환을 생각하므로 다른 이주민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수준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자신의 가족이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인다고 답하고 있어 충분한 변산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연구 참여자의 58.7%를 점하는 서울에서 행해진 연구(장혁심, 2005)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점에서 경제적 여유는 의미 있는 설명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학생이 지각하는 자신의 한국어 실력은 심리적 부적응과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과 거주기간은 정상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리적 부적응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른 연구(서한나, 2008; 허춘영, 1998)에서도 한국어 실력이 그들의 우울과 불안에 의미 있는 설명변수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장혁심(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지만 이는 한쪽에 비해 조선족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상식 및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Sumer, Poyrazli &

Grahame, 2008; Wang & Mallinckrodt, 2006) 결과와는 달리 한국어 구사능력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가 스트레스나 심리적 부적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결과라고 보겠다. 서한나(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실력보다 영어실력에 의해 우울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를 매우 커다란 스트레스로 지각하는데(하정희, 2008),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영어 구사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탓에, 유학생의 스트레스가 영어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체적 건강 상태는 우울과 불안 모두에 영향을 미쳐 건강한 유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유학생들에 비해 심리적 부적응을 덜 경험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건강지각에 대한 각 응답 범주의 사람들이 보이는 어려움 점수의 변량이다. 이 변량이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는 매우 작고, 아픈 사람들에게서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사람은 심리적 부적응을 안 겪지만, 아픈 사람들에서는 변이가 커서 일부는 어려움을 안 겪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크게 겪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유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학생의 어려움을 줄이는데 긴요한 사항이라 보겠다.

심리적 특성이 유학생의 우울과 불안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부적응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 또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의미있는 예측변인이 되지는 못하였다. 사회적 지지만이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는 유학생의 신체적 건강과는

별도로 어려움을 설명해 주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표 6).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어려울 때 주위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지각으로 가족, 친구, 학교의 세 대상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응답의 평균으로 보면 가족의 지지점수가 가장 높았지만(가족 10.54, 친구 9.62, 학교 8.89), 세 가지 지지 점수를 구분하여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학교지지 점수만이 유의미한 예측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여러 연구들(Constantine, Okazaki & Utsey 2004; Furukawa, 1997; Misra, Crist & Burant, 2003; Sumer, Poyrazli & Grahame, 2008; Swift & Wright, 2000)에서 사회적 지지는 유학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건강에 완충작용을 하여 그들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다른 연구에서도 유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의 도움, 교수와의 관계, 가족의 지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금해, 2008). 본 연구에서 친구지지를 파악하는 문항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지 않았다. 다른 연구에서 중국 유학생은 한국인 학생들과는 관계형성이 어렵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금해, 2008). 그래서 그들은 외로움을 경험하거나 우울을 느낄 때는 한국인 친구가 아니라 중국인 친구와의 만남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춘희, 2009; 최금해, 2008; 하정희 2008). 실제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보고한 친한 한국인 수는 평균 4명이었고, 한명 이하의 응답이 29명, 2-3명이 48명, 4명 이상이 73명으로 나왔지만, 이 숫자는 친구지지와 무관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와도 무

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적응과도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서 본 연구의 친구지지는 주로 다른 유학생이나 본인이 알고 있던 친구에 대해서 느끼는 지지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지지를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예언변인을 찾지 못하였다. 이들은 거주기간, 친한 한국인 수, 한국어 실력 등과는 무관하게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같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서 받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임춘희, 2009; 최금해, 2008; 하정희 2008). 본 연구와 다른 연구들의 이러한 결과는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중국문화의 '섬'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 섬 안에서 이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의 어려움에 대해 하정희(2008)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장해 온 중국유학생들이 한국사회의 위계질서나 상하관계, 남존여비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중국인의 특성상 타국에서 행동을 조심하는 행동양식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귀인하였다. 중국 유학생들은 이렇듯 한국 학생을 사귀지 못하고 중국 유학생들만의 지지체계를 형성하여 유학생회에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 후에 바로 귀국할 의향을 지닌 학생과 진학, 취업 등 한국에 더 머물러 지낼 사람으로 구분하여 느끼는 어려움과 사회지지를 비교해 보면, 사회지지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지만, 바로 귀국할 의향을 지닌 사람들이 심리적 부적응을 많이 느끼는 양상이 나타났다. 물론 본 조사에서 전후의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생활에 대한 애착을 덜 느낄 것이며, 사회적 지지도 전반적으로 덜 느끼고, 결과적으로 심리적 부적응을 더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즉 섬생활을 하는 경우에 심리적 부적응을 더 느끼고, 학업종료 후 즉시 귀국하는 양상이 강할 것으로 보겠다.

본 연구는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부적응을 느끼는 정도에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들의 생활상이 문화적 섬생활에 가까울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즉 한국인과의 교류는 필요한 경우로 접촉을 국한시키므로, 비록 적지 않은 한국인 친구를 두고 있지만, 이들과의 관계가 피상적이라서 유학생 본인들의 심리적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유학생회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더욱 이런 양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심리적 부적응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이들의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학교 당국의 관심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지지-특히 학교의 지지망과 활동-를 강화시키는 활동과 프로그램 제공에 관심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대부분 정상범위의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기에 치료적 개입을 요구하는 사람은 적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우울 혹은 불안 점수를 보인 유학생들(13명)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확인되고 있다. 즉 이들은 고시원 같은 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등 사회적 지지가 약한 양상을 보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았던 한계 탓에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 유의수준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설문 제작과정에서 역번역의 과정이 충족 되지 않은 것도 연구의 제한점이다. 아울러 지방의 한 도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에 유학중인 학생들만이 연구에 참여했기에, 나타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도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며, 이들이 보이는 생활상은 유학생의 비중이 더욱 늘어가는 한국의 대학교육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재고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가 시사하는 섬 생활의 면모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사회에서 국내 체재 유학생들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립국제교육원 (2008). 국내외국인유학생 통계. www.studyinkorea.go.kr
- 김광일 · 김재환 ·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중앙적성출판부.
- 리 난 (2009).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한나 (2009). 아시아권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수준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민족적 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 (2008). 중국인 유학생의 초기 적응 특성. 한국심리학회 2008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0-511.
- 송원영, 리 난 (200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유학 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59-173.
- 안영진, 최병두 (2008).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이론적 논의와 실태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3), 476-291.
- 양길모 (1998).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업무관련 개인적 특성, 업무성과관계분석.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수진 (2007). 성인애착이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공변량 구조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춘희 (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장혁심 (2005). 서울지역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금혜 (2008).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1), 115-138.
-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허춘영 (1998).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실태: 한족과 조선족 유학생간의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Constantine, M. G., Okazaki, S., & Utsey, S. O. (2004). Self-concealment, social self-Efficacy,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in African, Asian, and Latin American international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3), 230-241.
- Furukawa, T. (1997). Depressive symptoms among

-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 and their predictor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6, 242-246.
- Marion, P. B. (1986). Research on foreign students at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36, 65-82.
- Misra, R., Crist, M., & Burant, C. J. (2003). Relationships among life stress,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ors, and reactions to stressor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0(2), 137-157.
- Moris, S. (2000). Addressing in mental health concern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 137-144.
- Oei, T. P. S., & Notowidjojo, F. (1990). Depression and loneliness in overseas stud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36, 121-130.
- Poyrazli, S., Arbona, C., Nora, A., McPherson, R., & Pisecco, S. (2002). Relation between assertiven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3, 632-642.
- Rajapaksa, S., & Dundes, L. (2002). It's long way home: International student adjustment to living in the United States. *College Student Retention*, 41, 15-28.
- Sumer, S. Poyrazli, S., & Grahame, K. (2008).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6, 429-437.
- Swift, A., & Wright, M. O. (2000). Does social support buffer stress for college woman: When and how?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4, 23-42.
- Wang, C. D., & Mallinckrodt, B. (2006). Acculturation,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nese/Taiwa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422-433.
- Wei, M., Heppner, P. P., Mallen, M. J., Ku, T. Y., Liao, K. Y. H., & Wu, T. F. (2007). Acculturative stress, perfectionism,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385-394.

원고접수일 : 2009. 10. 19.

게재결정일 : 2009. 11. 30.

Socio-Psychological Predictors of Psychological Maladjustment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Sujin Lim

Center for Multicultural Society
Department of Psychology

Gyuseog H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number of Chinese students in Korean universities are on rapid rise for several years. The current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ir life by analyzing the psychological maladjustments they experience and their relevant factors. Two subscales of SCL-90-R were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depression and anxiety. We also investigated socio-individu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psychological maladjustments. Socio-psychological factors were age, sex, duration of stay in Korea, economic status of family, self-reported proficiency of Korean language, residential type, and health condition. Psychological factors were self-esteem, self-efficacy, and the perceived level of social support.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psychological maladjustments were health condition and self-efficacy. Surprisingly, many relevant factors did not show meaningful influence on psychological maladjustments. Further analysis indicates that Chinese students tend to maintain a cultural island where Chinese students mingle mainly with other Chinese. Those living in the cultural island tend to report high level of psychological maladjustments.

Key words :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s, Depression, Anxiety, Social Support, cultural island.